

## 우수사례

○ 국무총리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청장 이유택

# 먼지없는 송파, 그린파크 2006 시책 추진

송파구(구청장 李裕澤)는 2005. 국가환경진화경영 대상 지속가능발전부문(공공부문)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서울 동남권에 위치한 인구 61만의 송파구는 한성백제 5백년의 문화, 예술의 향기가 시려있는 풍납토성, 봉촌토성, 백제고분군 등을 비롯한 유·무형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유사 깊은 곳이며, 88 서울올림픽이 일터 지구촌의 이복이 집중되었던 곳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있는 자치구로서 한강, 성내천, 식온호수의 수변환경과 진마산, 남한산성이 백경처럼 에워싸고 있는 수려한 자연속에 올림픽공원과 같이 계획적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서울에서 가장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이다.

이러한 송파구의 환경개선 노력은 구정장의 환경선언 및 환경경영 방침 실정을 통한 환경을 행정의 제 1원칙으로 천명하고, 사회각계의 환경전문가, 환경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수변환경 개선과 도시의 계획적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도시오염으로 죽어가던 성내천과 식온호수를 되살려 다들 자치단체에 성공적 사례로 전파되었고,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탄전, 땅이름습지의 생태보전지역 지정 등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송파구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내내 건전

이던 성내천을 살리기 위해 한강에서 성내천 상류 복개도로 정점부까지 장장 5.1km에 이르는 구간에 67억원의 예산을 투입, 400mm 대형 송수관을 무설하여 1월 20,000여톤의 한강물 유입을 통해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였고, 콘크리트 바닥제기, 조정식 쌓기, 지하수 용출수를 활용한 벽천과 분수대, 물놀이장 등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쉼터로 제공되는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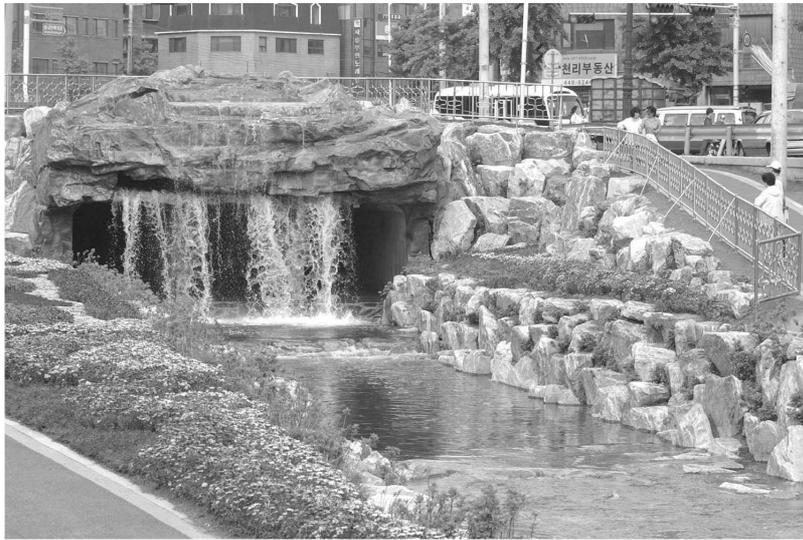
서울 도심의 유일한 호수인 식온호수를 지난 200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부유식물을 식고 자연석을 쌓아 호수자정 능력을 높였고, 빗꽃길과 단풍나무길 등 다양한 산책로와 장미원, 송파나무 기념공원 조성 등을 통해 하루 1만여명의 주민이 즐겨찾는 웰빙명소이자 송파구민의 정원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자전거 분화됨을 실천, 자전거로 송파구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성내천, 한강, 탄전을 연계한 25km의 자전거 외곽 순환도로를 조성하는 등 총 26개 노선 67.32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한편, 자전거부류수리센터 및 부류대여소 운영, 자전거주차장 확충, 자전거이용 모범학교 지정, 자전거사랑 한마음대회 개최 등 친환경적인 자전거 교통수단의 정착을 통해 '자전거 천국 송파구'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밖에, 송파구는 먼지발생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먼지없는 송파”를 추진하고, 탄천 및 방이동 습지의 생태보전지역 지정, 올림픽로, 송파대로, 남부순환로의 도로명소화 사업, 그리고 주차난 해소와 녹지공간

확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린과킹 2006” 등 각종 환경친화적인 시책 추진을 통해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환경친화경영활동 예시>



성내천 살리기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